

번호 13-6

제 목	국 문	우리나라 보호시설에 있는 미혼모의 의료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영 문	A Study on Medical Utilization Behavior of Unmarried Mothers in the Social Protective Institutes of Korea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이명희 ¹⁾ , 윤태영 ²⁾ 1)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Lee Myung-Hee ¹⁾ , Yoon Tai-Young ²⁾ , 1)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Kyung-Hee University 2) Dept. of Preventive Medicine, School of Medicine, Kyung Hee Univ.			
분 야	보건관리 (○)	발표자	일반회원 (○)	발표형식	구연 (○)
	역학 ()		전공의 ()		포스터 ()
환 경 ()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99년 10 월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미혼모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개인의 인식과 가치판단에 따라서 도움을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함이며 미혼모들의 의료이용행태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들 간의 연관관계를 정합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서치만(Suchman)의 단계별 질병과정모형을 이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미혼모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다.
- 2)미혼모의 발생요인을 분석한다.
- 3)미혼모들의 산전관리 중요성의 인식도 및 실행도를 분석한다.
- 4)미혼모들의 의료이용 추구경로와 비전문가 의뢰체계를 분석한다.

2. 연구 방법

전국의 미혼모 보호시설 8곳에 입소되어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목적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행하였으며, 1999년 7월 12일부터 2주간에 걸쳐 전국 미혼모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미혼모 전수인 총 227명의 미혼모에게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을 의뢰하여 분석하였으며, 응답율은 82.8%이었으며 설문은 미혼모의 일반적 특성, 자아정체감, 성태도 및 성지식, 성과 임신, 친구의 성태도, 부모의 성태도, 산전관리 중요성의 인식도 및 실행도, 의료이용 등 8개 영역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미혼모의 연령은 19세 이하가 48.9%로 10대의 미혼모가 과반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학력은 고졸이상의 학력이 전체의 48%로 학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10대의 미혼모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학력이 낮아서 과거 통계에서 나타났던 미혼모의 저학력과는 차별화되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가족은 전체의 32.5%, 가족소득은 평균 990,000원정도로 전체중에 중(中)등급에 속하며, Likert식 5단계 척도법으로 측정된 본인의 성태도는 3.17로 개방적이며, 친구의 성태도는 3.41로 개방적, 친구의 성행동은 3.17로 개방적, 부모의 성태도는 2.57로 폐쇄적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의 경우는 3.27로 안정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미혼모 발생요인으로서 자아정체감이 낮다는 것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미혼모들의 초경은 평균 13.4세이며, 월경주기는 1달에 1번이 78.2%, 2달에 1번이 11.2%로 전체의 89.4%가 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음 성관계를 가진 연령은 17.9세이며 최연소 연령은 11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음 성관계 대상과 현재의 아기 아버지가 동일인지에 대해서는 67%가 '아니다' 라고 응답하였다.

산전진찰 영역의 인식도는 4.16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실행도는 2.61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임신확인을 위하여 처음 이용한 보건의료기관은 약국이 44.7%, 병원이 44.1%이며 약국을 이용한 후에 산전진찰을 받은 시기는 57.2%가 3달 후에 병원을 방문했다고 했다. 산전진찰을 받은 시기는 5개월 이후가 전체의 62.3%이며 최초로 방문한 보건의료기관은 의원이 10.6%, 병원이 77.1%, 종합병원이 6.4%, 보건소가 4.8%, 조산소가 0.5%를 나타내고 있다. 미혼모들의 병원방문 횟수는 평균 3.7회이며 평균 진료비는 21,000원이다. 미혼모들이 출산을 결정한 시기는 임신 5개월 이후가 78.2%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혼모 보호시설을 이용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59%가 자발적으로 기관을 찾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미혼모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에 비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 고 찰

미혼모의 발생은 교육정도가 낮은 경우, 결혼가족,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부모의 성태도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경우, 친구의 성태도가 개방적인 경우, 자아정체감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한국여성개발원, 1984)는 보고가 있다.

미혼모들의 연령은 한국여성개발원(1984)의 보고에서는 가장 많은 연령층이 20~24세로 59.8%, 석홍(1988)은 20~24세가 36.9%, 주연옥(1997)은 19세 이하가 59.7%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되는 것을 볼 때 10대 미혼모의 증가가 현실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보건의료적인 관점에서 고위험 임신부로서 주위의 깊이 있는 지지가 필요하다.

미혼모들의 산전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와 실행도에서 산전진찰 영역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 데(엄애현, 1987), 한국여성개발원(1984)에 의하면 미혼모가 임신한 사실을 안 시기는, 산전진찰이 중요한 시기를 놓친 4~6 개월이 가장 많다고 하였으며, Elster(1984)도 많은 미혼모가 6개월이 지난 후 산전진찰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정상산모보다 훨씬 적게 받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서 부적절한 산전관리를 하는 미혼모는 분만전이나 분만후에 많은 질병의 위험이 있다. 즉 심한 임신중독증, 빈혈 등의 질병이 나타나고 아기에게는 기형발생, 사망율의 증가 등이 생기게 되어 미혼모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만큼 보건의료학적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Obeng, 1969)

따라서 미혼모들의 의료이용행태를 통하여 의료수요를 파악하여 의료공급체계의 구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미혼모들의 의료이용행태에 대한 이해는 미혼모들의 행태분석에 기초한 치료를 가능케 함으로써 진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으며 공급자 중심의 의료이용행태를 지양하고 환자중심의 가치가 의료체계 내에서 고려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